

## 전남도, 전남식품 온라인몰 '남도장터US' 미국 본토 상륙

### 2개월 시범운영 후 정식 개장...지역 기업제품 수출 확대 기대

전라남도는 미국 현지에서 전남산 고품질 농수산물식품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 '남도장터US'(jmall.us)를 구축, 앞으로 두 달간 시범운영 후 정식 개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도가 세계적 한류 열풍에 힘입어 지역 기업의 해외 수출선을 다각화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쇼핑몰을 확대하는 가운데, 미국 시장 내 전남산 농수산물식품 판매에 속도가

불을 전망이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미국 판매용 제품 선별, 각종 수출인증 등을 거쳐 수출한 66개 기업 147개 제품을 미국 전역에서 판매한다.

남도장터US는 앞서 전남도가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 '전남 브랜드관'을 개설해 전남식품의 경쟁력을 확인한 이후 올해 2월부터 구축에 들어갔다.

운영은 현지 온라인 전문기업이

맡았다.

입점 제품은 현지 고객의 신뢰를 쌓기 위해 도내 농수산물식품 중 '전라남도지사인증농수특산물'로 인증 받은 제품 위주로 선별했다.

시범운영 기간 신규 회원 모집, 주문·배송 테스트,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미흡한 점을 보완한 후 오는 9월 말 정식 개장할 예정이다.

남도장터US는 아마존의 냉동·냉장 식품 유통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많은 식품기업이 현지 온라인 시장에 진출하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지난 2017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인근 한남체인 플래튼점에 첫 번째로 전남 농수산물식품 전용 상설판매장을 개설한 이후, 전 세계 8개국 현지 마켓 21개소에 판매장을 구축했다.

현지 소비자는 물론 마켓 운영사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현재까지 1천549만 달러 규모의 수출액을 달성했다.

또한 지난 2020년 7월 미국 아마

존에 '전남 브랜드관'을 구축한 후 영국과 유럽연합(EU) 4개국, 캐나다 등 전 세계 7개국 아마존에 전남 식품 전용 브랜드관을 개설·운영했다. 그동안 43개 기업이 489만 달러 수출을 기록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전남도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전 세계 식품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수출선을 확보,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신현권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온라

인 소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최근 한국문화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남도장터US를 255만 재미동포를 비롯해 미국 현지인들이 바라는 고품질 한국음식에 대한 욕구 충족 통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남도장터US'에는 미국 내 수출입 통관이 가능한 제품을 생산하는 전남지역 수출기업이면 입점할 수 있다. 입점을 바라던 전남도 국제협력관실로 신청하면 된다.

/서용운 기자

## 현대차·기아, 달 표면 탐사 모빌리티 개발 위한 다자간 공동 연구 협약 체결

### 항공·우주 분야 역량 보유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 6곳과 27일 협약

그동안 로보틱스, AAM 등 모빌리티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줬던 현대자동차·기아가 마침내 그 비전을 우주까지 넓힌다.

현대차·기아는 달 표면 탐사 모빌리티 개발을 위해 항공·우주 역량을 보유한 국내 6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과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하고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전 롯데 시티 호텔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현대차·기아 연구개발본부장 박정국 사장을 비롯해 ▲한국천문연구원(KASI) 박영득 원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박종현 부원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김현준 연구부원장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이상률 원장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정지영 부원장 ▲한국자동차연구원(KATECH) 임광훈 경영지원본부장 등 협의체에 참여하는 여섯 개의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달 탐사 모빌리티에 요구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모빌리티를 달에서 운용하

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현대차·기아는 회사의 미래 기술 역량을 하나로 모아 협의회를 지원하게 된다.

현대차·기아는 로봇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로보틱스랩을 포함해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설계 분야 ▲우주 환경 대응 분야 ▲탐사 임무 수행을 위한 특수장비 분야 등 핵심 인력들로 협의회 조직을 구성했다.

현대차·기아는 빠르면 오는 8월에 협의회 소속 연구 기관들과의 공동 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다자간 협약은 우리나라 우주 기술 발전을 위해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기업이 보유한 역량을 총동원하고 관련 분야의 기술을 융합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달 표면 탐사 모빌리티의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서는 모빌리티 동체 개발뿐만 아니라 모빌리티에 탑재되는 과학 탐사 장비, 운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우주 통신 기능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한 달 표면은 지구와 달리 운석이나 혜성, 소행성과 충돌해 생긴 수백만 개의 크고 작은 분화구가 존재하며, 대기가 없어 우주의 방사선에 그대로 노출된다. 영상 130°C에서 영하 170°C를 오가는 극한의 날씨와 미세하면서도 칼날처럼 날카로운 먼지 등 지구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도 장애 요소다.

협의체는 이런 극한 환경에서 운용이 가능한 모빌리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현재 보유한 기술의 내구성과 완성도를 혁신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기아 역시 이번 협약을 통한 연구개발 과정에서 모빌리티 비전을 지구 밖 영역에서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모빌리티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미래 원천기술을 선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1월, 현대차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에서 인간의

이동 경험을 혁신적으로 확장시켜주는 '메타모빌리티(Metamobility)' 비전을 발표했는데, 스마트 모빌리티에 적합한 사용자가 우주에 있는 로봇 개 '스팟(SPOT)'의 경험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영상을 함께 공개했다.

이밖에도 지난해 2월에는 현대

차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운영하는 미래 모빌리티 개발 조직, '뉴 호라이즌스 스튜디오(New Horizons Studio)'가 개발한 무인 탐사로봇, '파라클레트(Paraklete)'의 우주 탐사 비전을 담은 이미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그동안

현대차·기아가 고객들에게 제시해왔던 로보틱스와 메타모빌리티에 대한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첫 걸음을 내디딘 셈"이라며, "언젠가 우리에게 다가올 필연적인 미래를 선제적으로 대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우주 시대의 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힘쓰고, 나아가 인류 이동 경험의 영역을 확장해 인류의 진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문수 기자



(왼쪽부터) 한국천문연구원 박영득 원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종현 부원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현준 연구부원장, 현대차·기아 연구개발본부장 박정국 사장,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상률 원장,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지영 부원장, 한국자동차연구원 임광훈 경영지원본부장. /현대자동차·기아 제공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

7월 OPEN

# 39층 새로운 컬처라이프의 중심.

완벽한 문화생활 인프라에서 새로운 프리미엄을 누리다!

## 중흥S-클래스 문화전당 & 층장

[시공예정사 : 중흥토건]

주택전시관 : 광주광역시 서구 마북북개로 91

84m<sup>2</sup>A·B, 113m<sup>2</sup>

문의 **062. 351.9999**

시행 (가칭)The50센트럴 금동지역주택조합 자금관리 코리아신탁(주) 업무대행사 데에이치산업개발

※ 상기 부동산은 사업승인 도면을 바탕으로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CG으로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출입구 디자인, 조경사계, 옥상, 지하, 창호형태, 외부색채 및 마감, 포장재, 시공 등 위에는 실제 시공 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아파트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